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4, 2021 Vol. 788

## “주여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2021 다민족연합기도회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

지난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된 2021 다민족 연합기도대회에 모인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 다민족교회 목회자들은 미국의 죄악을 회개하며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간구했다. 특히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미국의 지도자들과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민족들과의 연합과 세계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했다.

다민족 연합찬양단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한 이날 기도회는 강태광 목사를 사회로 박상목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의 개회 기도회에 이어 한기홍 목사가 역대하 7장 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총기 사고, 마약, 낙태, 도박 등 수많은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며 “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된 2021 다민족연합기도회 주요 참석자 기념 촬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나라를 회복주시길 것”이라고 기도를 촉구했다.

기도회를 인도한 강승영 목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시고 살리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영 김 캘리포니아 제39선거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과 세계를 바로 세울 차세대 일꾼을 위해 기도했다.

김 의원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우실 수 있으며, 혼란에 빠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더이상 정부가 감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문을 닫거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도했다.

그는 “소수인종 출신으로 세계 초강대국을 다스렸던 요셉이나 다니엘, 에스더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며 “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독교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기도회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성규 목사(주님세

운교회), 김철민 장로(CMF 가정사역원), 박형준 목사(남가주 새생명교회), 김영구 목사(세계 기도모임 미서부지부), 황치훈 장로(OC장로교회), 알렌 파커 회장(저스티스 파운데이션), 우수연 교육위원(ABC통합교육국) 등이 회개, 가정 회복, 교육 회복 등 청교도신앙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또 디온 엘모어 (네셔널 데이 프레이어 부회장)가 미국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민경업 목사(나침반교회), 정영희 목사(드림교회)가 미국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 캘리포니아 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가 차세대의 영적 무장과 부흥을 위해 도전한 후 김황신 목사(은혜한인교회 EM) 목사기도했다.

이어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가 다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도전하고, 다민족 지도자들이 기도했으며,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가 고통 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한 후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 美 역사상 최초 트랜스젠더 4성 제독 임명

레이첼 레빈 미 보건부 차관보가 미 역사상 최초 트랜스젠더 4성 제독으로 취임했다.

19일 미국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미 보건부는 공중보건 서비스단의 최고위 관리인 레빈 차관보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공중보건서비스단은 연방정부를 대신해 코로나19 백신 관리, 허리케인 사후 피해 복구 등 공중보건 업무를 주력하는 군 조직으로, 단장은 6천 명의 병력을 거느린 4성 제독이 된다.

이날 보건부는 “레빈이 4성 제

독으로서 미국 내 취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6천 명의 장교들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레빈은 “다양성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 공중보건서비스단을 이끌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서비스단은 미 해군 의무대에서 분화된 조직으로 미 해군 계급과 군복을 사용하지만, 미국 보건부의 지휘를 받는다.

레빈은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으로

재직해 왔다.

지난 3월부터 보건차관부 자리에 오르며 미국 최초로 상원 인준을 통과한 트랜스젠더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는 어린이들이 성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보수 단체로부터 극단적·급진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가 상원 인준을 받을 당시, ‘American Principal Project’(APP)와 같은 보수 단체들은 “보건부

차관보 직책이 아동이 성전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에게 돌아갔다”고 반발했다.

가족연구위원회 정책·정부 업무를 맡고 있는 트레비스 웨버는 성명을 통해 “청문회에서 그는 랜드 폴



레이첼 레빈 4성 장관 @미국 보건복지부

상원의원이 성전환 호르몬 사용과 미성년자를 위한 성전환 수술이 학대라고 보는지 질문했을 때 대답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자유에 대한 레빈 박사의 심자군적인 행동은 평등법(Equality Act)이나 ‘모두를 위한 공정성’(Fairness for All)과 같은 법안에 의해 더 악화될 것이다. 두 법안 모두 보건복지부가 시행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칼라프린트/알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미주예성 총회장 오병익 목사 “교회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할 것”

### 교단 산하 교회 목회 사역 및 재정 지원 계획

예수교미주성결교회총회는 지난 24일 남가주벤엘교회에서 오병익 목사 총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 예성 총회장 이상문 목사와 총무 이강춘 목사가 참석했으며,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윤석형 목사가 참석해 교단간 협력을 약속했다.

오병익 목사는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교 비전을 이루고자 성실하고 겸손하게 일하겠다”며 “특히 교단 산하 모든 교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과 이민 목회 가운데 재충전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주 기성 총회와는 형제교단으로서 교단간 친목과 교제를 통해 긴밀히 서로 도우며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부터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윤석형 목사, 예수교미주성결교회총회장 오병익 목사, 한국 예성 총회장 이상문 목사 ©기독일보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오병익 목사의 사회로 이윤수 목사(서부지방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한국 예성 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하나님의 관심(출3:7-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상문 목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교미주성결총회

와 오늘 취임하는 오병익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바란다”며 “예수교미주성결교회총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강양규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남가주새언약교회)의 사회로 진

행된 취임식은 김영일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더섬기는교회)가 총회장 소개, 이상문 목사가 취임 선서와 취임 감사 기도를 했다. 양홍규 목사(미국 서남지방회장)가 축하패를 전했다. 윤석형 목사(미주성결교회총회장), 이강춘 목사(한국예성총회총무)와 오병익 목사의 쌍둥이 동생 오공익 목사(제주중문교

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윤석형 목사는 “총회장 취임 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 교단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기쁘게 만나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며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총회장으로 세움 받으셨는데, 양 교단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강춘 목사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병익 목사님과 미주 예성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공익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영성과 경건의 목회자”라며 “오병익 목사님을 통해서 미주의 많은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더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식은 박용덕 목사(미주예성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 풀러 신학교, 신임 총장 선출 및 인계 절차 시작



풀러신학교 ©페이스북

풀러 신학교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총장은 지난 22일, 서신을 통해 오는 2023년 6월을 기한으로 신임 총장 선출 및 인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래버튼 총장은 풀러 로이드 존 오길비(Lloyd John Ogilvie) 설교학부에서 부교수로, 오길비 설교 연구소(Ogilvie Institute of Preaching) 원장으로 4년 동안 재직했으며 2013년 풀러 신학교 제 5대 총장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봉직하고 있다.

현 래버튼 총장의 사임과 신임 총장 선출은 래버튼 총장이 선임될 당시, 10년 동안만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래버튼 총장과 이 사회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래버튼 총장은 “풀러에서의 시간은 저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계절이었다. 풀러 공동체를 섬기고 이곳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특권에 더없이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풀러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풀러가 더욱 알찬 미래를 위해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임 총장 선출 및 인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풀러 이사회 의장 댄 마이어(Dan Meyer)는 “교회, 사회, 그리고 기독교 고등교육의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래버튼 총장은 훌륭한 리더십으로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을 보살폈다”고 칭찬했다.

댄 마이어 의장은 또 “래버튼 총장은 풀러 넥스트(FULLER NEXT)라는 비전과 전략, 균형 잡힌 예산을 바탕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으며, 풀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금 모음 캠페인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이에 래버튼 총장은 “제가 총장직을 마치게 되더라도 풀러신



총장 마크 래버튼 ©풀러신학교

학대학원이라는 강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확실한 희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사회 임원과 교수진 대표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인수인계팀’을 구성하고, 의장에는 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 최고경영책임자인 산티아고 “지미” 멜라도(Santiago “Jimmy” Mellado)를 임명했다.

인수인계팀은 구인 컨설턴트와 협력하며 신임 총장 선출을 준비할 예정이다.

멜라도 의장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러를 다음 시대로 이끌 놀라운 리더를 준비하셨다고 믿는다”며 “준비된 사람을 찾고 풀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美 LA카운티 월넷시장, 전광훈 목사 표창

미국을 방문 중인 전광훈 목사(국민혁명당 대표)가 LA카운티 월넷시 에릭 칭 시장에게 표창을 받았다.

칭 시장은 10월 25일 표창장에서 전 목사에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자유주의 실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위해 엄청난 헌신과 투쟁을 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칭 시장은 또 전 목사에게 ‘대통령 이승만의 날’ 선포 증서와 행운의 열쇠도 전달했다. 미국 LA카운티 월넷시와 오렌지 카운티 스탠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일인 매년 10월 1일을 ‘대통령 이승만의 날’로 결의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는 수상 소감으로 “서울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제가 가는 도시들마다 이렇게 큰 호응이 있을 줄 몰랐다”며 “특히 뉴저지에 서도 상하원이 결의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전달받았는데, 그곳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워싱턴DC를 포함한 모든 행정 당국도 제 사



전광훈 목사가 표창장을 들어보고 있다. ©유튜브 너말아TV 캡처

역을 정확히 이해해 줘서 감사하다”며 “그 뜻을 받들어 꼭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국내의 문제는 제가 맡아 반드시 정돈하겠다”며 “그러나 특별히 해외 동포들이 미국을 움직여 모든 악의 근원인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남북이 통일하면 2050년에는 세계 G2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는 대선에서 이기면 그 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동욱 기자

www.itsla.edu

#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2022년 겨울,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드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 렉스 교수, Ph.D.  
(풀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릴라 이도요 교수, DMiss  
(풀러신학교) 터문화사역

데이비트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관호 교수, Dr.theol.  
(독일 본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겨울, 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겨울 학기 접수 기간	2021년 10월 25일(월) ~ 11월 5일(금)
봄 학기 접수 기간	2021년 10월 25일(월) ~ 11월 15일(월)

■ 겨울학기 일정(9주)      ■ 봄학기 일정(10주)  
2022년 1월 3일(월) - 3월 4일(금)      2022년 3월 28일(월) - 6월 3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http://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 제 8회 효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개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주최한 제8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6일, 은혜한 인교회 미라클 센터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86명의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캘리포니아39지구 영 김 연방 하원 의원도 참석해 참가 학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최우수상 아트 부분 2명, 글짓기 2명, 대상 수상자 각 부분 1명에게는 상금 300달러와 O.C 교회협의회 회장 박상목 목사와 효사랑선교회 김영찬 목사가 상장을 수여했고, 대상에게는 상금 500달러와 영 김 의원이 상장을

수여했다. 아트 부분 대상은 클로이 남(6th), 글짓기 대상은 누크 정(11th)이 수상했고 당선된 글을 직접 낭독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박용일 목사와 한나박 자매의 사회로 남승우 목사의 기도예 이어 준리(은혜한인교회 EM) 목사가 설교했다.

김영찬 목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성격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다음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된다"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O.C. 교회 협의회 회장 박상목 목사는 "정부의 잘못된 교



제8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육 정책으로 바른 교육을 중시해야 하는 때에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이와 같은 대

회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교육현장

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김동욱 기자

## 차인홍 교수 초청, 2021 온라인 밀알의밤 "THE FIRST NOEL"



차인홍 교수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하는 2021년 밀알의 밤이 "THE FIRST NOEL"이란 주제로 오는 12월 5일(주일)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차인홍' 교수를 초청해 열린다.

또 성탄절인 12월 25일(토)에는 유튜브와 페이스 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녹화된 크리스마스 콘서트 스트리밍 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올해 밀알의 밤 메인 게스트로 나서는 차인홍 교수는 'Charis Christian Chamber'와 함께 감동의 선율과 은혜로운 간증을 전할 예정이다.

차인홍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미국 신시내티음악대학 유학 후 뉴욕시립대학교 브록클린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에는 대전시향 악장에 취임했고 1996년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지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Wright State University) 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오하이오 라이트주립대학 교 음악원 교수, 대학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 현악 4 중주단 제 1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25일 성탄절 저녁에는 차인홍 교수 연주 녹화 편집본과 함께 김에스터 자매가 인도하는 로컬찬양팀 M514의 찬양, 남가주밀알수어찬양팀의 수어찬양 등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밀알의 밤과 마찬가지로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스튜디오에 초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온라인 생방송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 수어찬양 곡들을 포함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게 된다.

이종희 목사는 "올해 밀알의 밤 주제인 'THE FIRST NOEL'에서 'NOEL'은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며 "한 해를 정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그리고 감동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권세 모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듯이,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은 Covid-19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또 다시 오실 것"이라며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크리스마스의 벅찬 기쁨과 감동을 '2021 온라인 밀알의 밤'을 통해 더욱 더 깊이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기도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년 가을 '밀알의 밤'을 개최해 교민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안겨주며,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오고 있다.

김동욱 기자

## LA 온누리교회 "무료 혈액검사, 독감 예방 접종 받으세요"

코로나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한인교회가 특별한 건강검진 행사를 마련했다.

LA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정엽)는 오는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743 S. Grand View St. LA, CA 90057)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 및 혈액 검사 행사를 개최한다. 독감 예방접종이나 기본 혈액 검사를 원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사전 예약하고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협력한 덕분에 무료 독감접종도 함께 진행한다. 1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 행사 당일 시터스-사이나이 건강형평성연구소도 안내 부스를 마련, 대장암과 유방암에 대한 정보와 무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검사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LA 온누리교회는 "코로나로 정기검진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병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사회 바쁘게 살아가며 건강을 돌볼 시



간이 없거나 비용 부담을 느끼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독감 예방접종과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행사 홈페이지(www.yudogo.com)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11월 14일 예약 시간에 맞춰 교회를 방문하면 혈액 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당 수치를 비롯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간·신장 기능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다. 채혈 예약을 한 사람은 8시간 금식(물도 안됨)해야 한다.

김동욱 기자 문의: 213-382-5658

##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신(미국수립신대 명예교수) 이용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명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은목사(주필리이주대표), 신성민목사(동일선 대외이사), 유한지목사(서울의료원대표), 김인식목사(ACC 공동대표)

책의 책값: \$20 / 판매량 + \$5 수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병은 그를 위연하지 않았다'는 복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혜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찬사로 울거리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관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관영수증을 첨부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10.10.~2022.01.08.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2022.01.08.까지 by January 08, 2022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인터넷 이용(ova.nec.go.kr), 공관방문 / 순회접수,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2.02.23.~02.28.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28

“2021 KIMNET 국제 선교지도자 포럼(1)”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021 KIMNET 국제 선교지도자 포럼’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다.

Kingdom Inter Missions Network의 약자를 모아 KIMNET이라 한다. 미주 안의 선교단체들이 모여 포럼과 교제를 통해 세계선교 완성을 향한 선교동역자 모임이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킴네트의 이사로서 섬기며 참여하였다. 많이 발전했고 이젠 한국의 KWMA와 KWFM 등과도 M.O.U를 맺고 동역하고 있다. 이번에도 여러 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

한인 교계는 Target 2030 선교 비전을 정했다. 한인 장기 선교사 10만 명 파송 비전을 세웠다. 이 비전은 통계 자료에 의한 산술적 계산에 근거했다. 1980년에 100명 선교사 파송이었는데 2015년에는 14,000명이 파송된 것을 근거로,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9만 3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비전적 수치로 설정한 수가 10만 명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비전을 세운 해부터 한국 선교사 파송에 차질이 생겼다. 2010년 샘물교회 두 명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며 한국 교회 선교사 파송은 멈추고 말았다. 몇몇 선교단체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의 순교자를 배출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선교한 결과로 얻은 소수의 장기선교사 파송이 전부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절망적인가? 아니다. 선교사 파송 2030 비전을 하나님이 수정하고 계심을 본다.

필자는 선교사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점점 국가적으로 기독교의 선교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 등의 나라들이 선교사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 새로운 선교 접근이 필요한 시대이다.

장기선교사의 입지가 어렵고 파송도 줄어들고 있는데 현지의 결신자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누가 현지 선교 부흥을 이끌고 있을까? 자비량 단기선교팀들과 전문인 선교팀의 활동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후방에서 적합한 선교훈련과 준비를 갖춘 후 매년 짧은 기간을 정하여 선교지에 직접 가서 체험하는 선교이다. (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신약성경 “예수님이 지키신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볼 수 없었던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부르고 NIV 성경은 the Festival of Dedi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럽혀졌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의 이해를 위해 간단한 역사를 정리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뷰어 USA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약 400년간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정복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철저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페르시아 고레스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며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재건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칭합니다.

그 후 고레스의 페르시아는 헬라제국에 의해 망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없이 급사하자 그의 부하 장군들이 제국을 넷으로 나눕니다.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지역을 차지했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와 트라키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동쪽을 차지했고 프톨로메오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는 거의 독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최고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셀레우코스 왕국이 프톨레미 왕국을 정복하자 유대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은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치며 유대교를 핍박했고, 이 핍박은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극에 달합니다.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셀레우코스 제국의 황제였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핍박은 잔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에 스스

로 붙인 에피파네스 의미는 ‘신의 현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격화 했고, 하나님과 성전을 무도하게 모욕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악행은 잔악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할례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금하는 칙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잔인했습니다. 칙령을 따르지 않으면 모진 고문을 가하여 온 몸이 불구가 되게 했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거나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모독 행위를 지켜본 유대인들을 분노하였습니다. 이 분노로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전 167년, 제사장 맛다디아는 자신의 고향 ‘모데인’에서 다섯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맛다디아 사후에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뛰어난 역할 때문에 ‘마카비 혁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군은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성전의 모습을 본 마카비 혁명군은 옷을 찢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봉헌하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봉헌한 날이 주전 164년 기슬르월

(12월) 25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긴 날로부터 3년 후 같은 날에 봉헌했습니다. 다니엘서 8:14에는 더러워진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의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주전 170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주전 164년 12월(기슬르월) 25일까지 약 2,300주야가 지나갔습니다.

마카비 전쟁과 수전절 기원은 고대 문서들에 등장합니다. 우선 구약 다니엘서가 기록(단 8:9-14)합니다. 또 외경인 마카비서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에서 마카비 전쟁을 소개하고, 타키투스나 플리니우스도 마카비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아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별명인 에피파네스를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마카비 혁명군은 성전을 정화한 다음 8일간의 성대한 봉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축제의 시작입니다. 그 후 마카비 혁명군이 세운 유대인의 하스몬 왕조는 해마다 이 축제를 지켰고, 예수님 시대에도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앙 전통을 따라 수전절을 지킨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수전절을 지킵니다. 수전절에는 촛불을 켜고 ‘세비본’이라는 팻이 돌리기를 하는데 박해 기간 동안 성경을 읽다가 적군들이 급습하면 팻이놀이 하는 척 했던 것을 기념하는 놀이입니다. 수전절은 8일간 지킵니다. 이는 마카비 항쟁 기간에 기름이 부족한 촛불을 8일 동안 지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성전회복 과정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현재 신앙의 자유를 감사하며 매년 수전절을 지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미스바 금요성령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왠지 모를 인생의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눌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사탄은 수없이 공격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금요성령집회로 인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스바 금요성령집회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다.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 일정

-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7:30  
10월 29일(금) 오후 7:30  
11월 5일(금) 오후 7:30  
11월 12일(금) 오후 7:30

■ 장소 : 주님의 교회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강사: 최훈 목사  
주님의 교회 담임

- 주님의 교회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대예배 매주 주일(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수요 저녁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시
  - 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종교개혁 504주년 특별 기고]

# 교회 음악가 마틴 루터(1)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 - 1546)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크게 세가지로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인쇄술의 발명이었다. 종교개혁 직전에 구텐베르크 금속 활판 인쇄술이 발명(1440년경)되어 인쇄를 통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당시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눈을 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음악이었다. 자유로운 음악을 사용하여 회중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개혁의 불을 삼시간에 널리 퍼트리게 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음악의 효용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개혁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전에 개혁자들이 이루지 못한 종교개혁의 대업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마틴 루터를 신학자가 아닌 음악인으로서 조명해 보기 위해 그의 음악교육 과정과 예배음악관을 서술하고 이것으로 정립된 그의 교회음악 철학이 종교개혁과 개신교, 교회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또한 서양 음악사에 미치게 된 영향을 탐구하려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통해 오늘날 예배음악을 점검하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루터는 독일 작센안할트 주 아이슬레벤(Eisleben)에서 아버지 한스 루터(Hans Luther)와 어머니 마가렛 지글러(Margarether Ziegler) 사이에 태어났다. 어머니 마가렛 지글러는 당시 수준 있는 가문의 딸로 음악적 소양이 깊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루터는 자연스럽게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그가 쓴 "Urban Regius 1535"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나의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짧은 소가곡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의 음악 교육 과정을 보면 그는 비록 전문 음악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그의 모든 교육과정 속에 우선순위는 음악을 많이 생각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루터의 교육 과정 속에 음악교육을 요약 서술해 보도록 한다. 루터는 라틴 학교인 멘스펠드 초등학교(Mansfeld School)를 다녔다. 이때 그의 교육은 주로 읽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마틴 루터의 동상.

고, 쓰고, 노래하는 것이 주 교과목이었는데 그는 이 학교에서 노래하는 것을 생활화 하는 첫 음악교육의 장소였다. 이어 라틴 성당 학교(Latin Cathedral School)에서 공동 생활을 하며 찬트(Individual Chant)를 노래하는 훈련을 많이 쌓게 되었다.

어어 조지엔 학교(Georgen School)에서 당시 프란체스코 영성을 지닌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귀족 가문인 The Schalbe와 Cotta 집안과 친분을 쌓아가며 루터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 때, Cotta 집안 여사가 루터의 노래와 루터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의 나이 18세에 당시 독일에서 최고의 명문 중 하나인 에르푸르트 대학(University of Erfurt)을 입학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그의 전공은 문학 사였지만 음악 이론과 작곡을 부전공으로 공부하였고, 아울러 후에 루터교회 찬송 작곡가가 된 요하네스 바인멘(Johannes Weinmann 1477-1542), 작곡가 그로그 라우(Grogr Rhau 1488-1548), 찬송 작가 저스투스 요나 Justus Jonas(1493-1555)또 한 명의 유명한 작곡가 요하네스 슈판겐 베르그(Johannes Spangenberg 1484-1550) 등과 친분을 쌓게 되어 그가 미래에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음악 동역자들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가 대학교육을 마치고 법학을 하려던 원래 계획을 접고 수도사로서 수학 받기 위해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과 수도원에 입문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음악적 소양을 체계화 하고 전문화 하여 자신의 사역 속에 음

악을 접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과정을 보면 95개 조항: 원제목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Disputation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s)"을 작성하여 당시 여러 학자들이나 이에 관계된 관련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자는 의도로 1517년 10월 31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려는 의도도 없었고, 교황에 대한 공격 또한 목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2주도 채 안되어 삼시간에 유럽 전역에 이 조항이 번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루터 자신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이후 지속되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자 드디어 1520년 9월 21일 로마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된다. 그러자 그 해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파문서를 불태워 버린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 피난의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고 1521년 발트부르크(Wartburg)성에 피신하면서 그 곳에서 여러 글을 쓰게 되었고 특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루터의 음악이 개혁의 불을 지피는데 사용되기 시작한다. 1523년 벨지움에 있는 앤트워프 수도원(Monastery Antwerp in Belgium)의 수도사 하인리히 뵈즈(Heinrich Voes)와 요한 에쉬(Johann Esch)가 화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루터란 최초의 순교자들로 기록되고

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정설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인 레온하르트 카이저(Leonhard Kaiser)의 순교를 추모하며 결백성과 정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루터의 음악적 특징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는 한 음표에 한 음절씩 가사를 붙였다(Syllabic). 리듬의 생동력(rhythmic vitality)을 가하게 하였다. 라틴 찬송이나 찬트(Latin Hymns and Chants), 대중적 세속 노래들(Popular secular songs) 그리고 새롭게 작곡해서(New composition) 다양한 자료들을 합창(Chorale)에 접목시켜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또한 기악음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중세 미사음악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교회에 대입시키게 되었다. 가사는 시편가 만을 주창하지 않았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언어로 바꾸는 페러프레이즈(Parephrase) 방법을 사용하여 회중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며 깊이 동감할 수 있는 가사를 사용하게 되었다.

루터가 갖고 있던 찬송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찬송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필자가 눈에 크게 뜨이는 그의 찬송관은 가사에 대한 민감함이다. "Die noten machen den text lebendig" 가사가 살아 생동력 있게 음악을 만들라" 이 이론은 당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죠스퀼 데프레(Josquin Des Prez 1440-1521)가 갖고 있던 음악사상으로 루터는 이 죠스퀼을 극히 추앙하고 있었다. (계속)

루터는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에서 회중들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한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예배에서 회중들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1524년 요한 발터(Johann Walter)의 도움으로 23곡의 비텐베르크 성가집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찬송집이다. 이어 같은 해에 8편의 찬송집(Etlich Christlich Lieder)을 만들었고 1529년 영적 찬송가(Enchiridion geistlicher Gesenge), 1533년 1545년에 각각 영가집(Geistliche Lieder)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 독일의 회중 찬송인 코랄(Choral) 장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안에 우리가 종교개혁가라고 불리어 지고 있는 대표적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so)"가 담겨있다. 이 곡은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세속 멜로디를 사용하였고 가사는 시편 46편 1-2절을 기초로 해서 만들게 되었다. 이 곡을 만들게



윤임상 교수  
웰드미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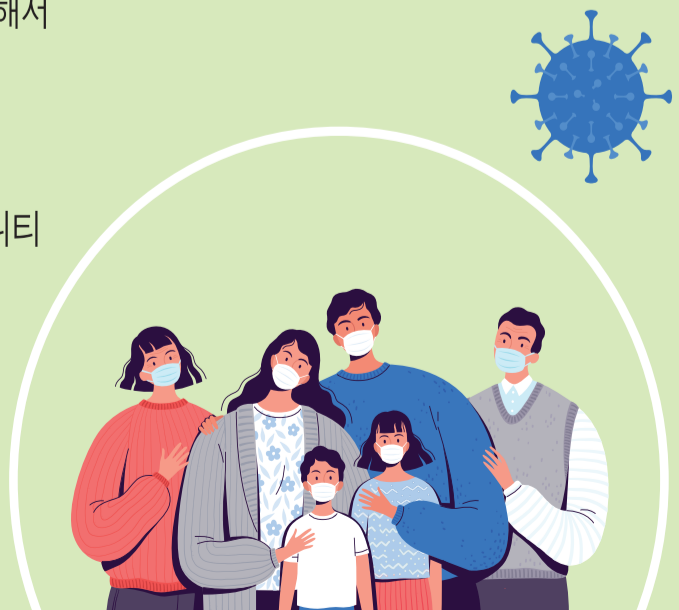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제공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예배 회복 시급”



24일 20% 좌석을 채운 가운데 드러진 예배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지난 7월 1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온라인 예배와 99명으로 제한된 대면예배를 드러운 지 15주 만인 10월 24일, 국내 교회들은 수용 인원 20%가

참석하는 주일예배를 드렸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참석할 경우 수용 인원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1만 2,000명을 수용하는 대성전에만 2,400명이 미리 표시해 둔 자리에 앉아, 나머

7월 중순 이후 15주 만에 20% 참석 대면 예배 드러 위드 코로나 앞두고 "기도 성령 전도운동 활성화"

지 부속 성전에서도 이와 같은 비율로 참석해 대면 예배를 드렸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19일 국장과 대교구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11월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지금 시급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며 "지금부터 순복음 영성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 성령 전도 운동의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순복음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조용기 원로목사님이 남긴 영적 유산을 뿌리내리

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도와 성령 운동과 함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에 힘쓸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심방하고 사랑의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품는 사랑의 봉사를 활발히 전개할 것도 당부했다.

이대웅 기자

# “장신대, 기도하는 공동체 돼야... 경건 없는 신학은 가짜”

서정운 명예총장, 장신대 개교120주년 학술대회서 발제



전 장신대 총장 서정운 목사.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주관한 '장신대 개교 120주년 학술대회&종교개혁제'가 장신대에서 21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서정운 장신대 명예총장은 '장신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120년 전인 1901년 마포삼일선교사와 그의 동지들이 조선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인재 육성에 신학교를 세우고자 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한 채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낮설고 위험한 땅인 조선에 온 건, 하나님이 시급히 원하시는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세워진 장신대의 오늘과 이 시대는 불안하다. 교계도 청명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를 포함해 세상 임금들의 머리(계1:5)이며 가이사가 아닌 메시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선포했다. 고난과 박해에도

초기교회는 메시아적 기운으로 생동했다"며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 신학은 철학화, 교회는 제도화와 사업화됐고, 그때부터 교회는 권세와 명예 및 재물이 붙었다. 탐욕자들이 쟁취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손질하며 교회는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폐가 타성이 돼 지금은 대체로 무감각한 상태를 지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반 메시아적 행태이며 교회를 안락사 시키는 중병"이라며 "말레이시아의 화용 감독은 아시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 한국교회의 리더십 약화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장신대가 처한 환경도 같다. 장신대가 직면한 도전은 한국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이끌어 갈 역군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즉 사도 시대 이후 초기 역동했던 메시아적 교회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만드는 기

본 작업"이라며 "120년 전 마포 삼일과 동지들이 그렸던 비전을 회복하고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 속에 끓었던 거룩한 열정을 불 지피는 것이다. 1회 졸업생들을 위시한 귀한 선배들이 남기고 간 성경·교회사랑·기도·전도의 열심과 구국 헌신을 가르치고 깨우치며 다짐하면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총장은 "확실한 것은 장신대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핵심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사람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장신대의 목표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육을 우리 신학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게 함 ▲친밀한 인격적 교제 ▲구체적 목표 제시 하나님 나라 ▲현장 중심의 훈련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열정 함양 ▲주님께 순종하는 헌신"을 장신대의 신학방향으로 제안하며 "장신대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우리 삶 전체가 온전히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본 회파에 따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라고 했다. 이것이 경건이다. 이것이 없는 신학은 가짜"라고 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다. 장신대는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 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앞에 제안한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이는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을 돕는 장신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팽용길 장신대 제

14대 학장도 기조강연자로 나서고, 이어 박경수·고원석(장신대, 배정훈 교수(고신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김운용 총장은 인사말에서 "개교120주년 학술제 개최에 감사하다. 학술제를 통해 장신대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검찰,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방역 방해 변명 일관... 1심 무죄 선고 파기될”



신천지 이만희 교주.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씨(90)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씨에 대한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감염병위반법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방역활동 방해에 대해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가 피해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웅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제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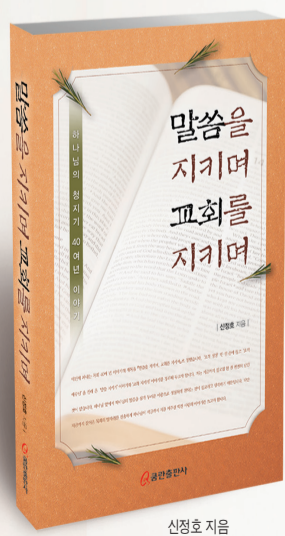
필요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서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예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연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목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미얀마 후회 원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현상영문예대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가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명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서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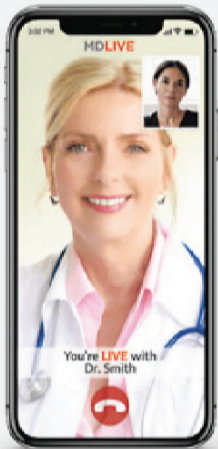
호남신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교·농어촌 부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위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총동문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교 교역원, 호남대학교 이사, 한국노회총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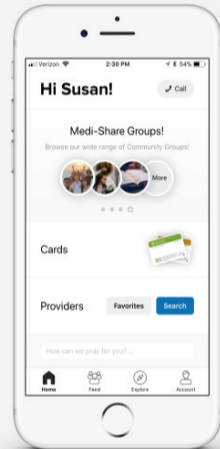
#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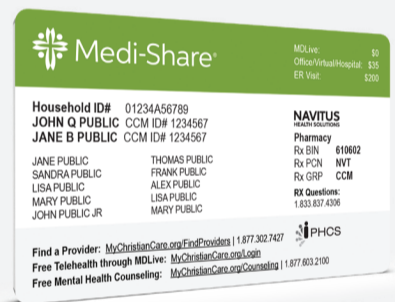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메디세어는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 847-901-32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zusa2@gmail.com](mailto:prozusa2@gmail.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백송교회**  
백송회침례 순결하고 스사우치유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하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창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ast 교차)  
T. (213) 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서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전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일)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친.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침례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은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오전 6:00

**김승희**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주일 1부 오전 7:00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3부 오전 11:00  
사망부 오전 8:45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인청년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교육부 주일예배  
유초등부 오전 9:30 (유초등부예배 오후 8시)  
중고등부 오전 11:45 (중고등부예배 오후 7시)  
EM: 오전 1:30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라지(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신태성**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 2022년 교회가 직면할 9가지 현실은?

교회 성장 전문 컨설팅 기관인 처치 앤서스(Church Answers)의 대표 톰 라이너(Thom S. Rainer)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2022년에 당신의 교회가 직면하게 될 9가지 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톰 라이너 목사는 미국 수백 개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Unsplash/Oskar Kadaksoo

**1. 희망을 가질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재정 감소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출석률이 2019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교회가 6곳 중 1곳이다.

**2.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를 최우선 사역으로 옮길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도는 교회의 또 다른 활동이나 사역이 아니다. 예상 못한 성공을 거두는 교회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전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이 포스트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3. 교단의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단들이 한 때 교회를 돕는 데 필요했던 자원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며, 교회들 사이에 새로운 친목 단체들(affinity groups)이 생성되어 서로 도울 것이다.

**4.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태도는 획일적이지 않다.** 모든 비기독교인을 반기독교인으로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 신앙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떤 문화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1세기 문화는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적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들은 잘 승리했다.

**5. 시간제 직업 사역이 표준화 된다.** 현재 북미에는 100만 명의 파트타임 목사와 사역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부 재정적 한계 때문은 아니다. 많은 '투잡' 목사와 사역자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공동직업 사역(co-vocational ministry)”이라고 부른다.

**6. 수평적 성장은 발전하는 교회의 핵심**

**심 전략이 된다.** 수평적 성장은 교회가 새로운 공간, 주일 오전과 다른 새로운 예배, 새로운 장소나 기존 교회를 채택할 때 일어난다. 수직적 성장은 과거의 핵심 전략이었다. 교회들은 일요일 아침에 한 장소에서 가능한 한 많이 성장하고자 애썼다.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수평적 성장과 수직적 성장이 상호보완적일 것이다.

**7. 최대 1만 5000개에 달하는 교회가 폐쇄 또는 인수될 것이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간의 (교회)폐쇄보다 더 높다. 코로나는 분명히 주세를 가속화하고 악화시켰다. 폐쇄 문제는 슬픈 현실이지만, 인수(또는 이식)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추세이다.

**8. 변화에 저항하는 교회는 더 빨리 쇠퇴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슬픈 슬로건은 쇠퇴와 죽음을 의미한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교회들은 문화적 기독교인의 완만한 성장 탓에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기독교(Cultural Christianity)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의 불필요한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9. 더 많은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데 고군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매주 목사가 없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교회들이 교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찾을 수 없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데 매우 신중하다. 교회가 목사를 해고했거나 목사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거나, 직원 분규가 발생했거나, 부정적이고 투쟁한다는 평판을 얻는 교회라면 배제할 것이다.

### 미국인 64% “SNS 사용하기 전 삶이 더 좋았다”

미국인의 약 3분의 2 가량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소셜스피어(SocialSphere)의 존 델라 볼프 작가는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16세 이상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59%는 페이스북, 49%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전이 더 좋았다고 했다. 16~27세 이른바 G세대의 42%를 포함한 응답자의 28%는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고 말했다. 또 많은 응답자들이 소셜미디어가 삶의 많은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대부분은 주로 아이들과 10대를 보호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를 지지했다.

하버드 정치연구소의 여론조사 담당을 맡고 있는 델라 볼프 작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것이 정치, 언론, 국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 등에 순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이용자 중 3분의 2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가 끼치는 해악에 대한 우려는 계속 증가해 왔으며, 특별히 정신 건강 및 정치 담화 이슈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미 상원의 리처드 블룸렌탈 의원과 마샤 블랙넬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이 10대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력을 어느 범위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2020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주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 및 정치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관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고, 정확하지 않은 주장을 들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응답자들이 소셜미디어가 삶의 많은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대부분은 주로 아이들과 10대를 보호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혜진 기자



### 미 지방정부, 교회에 차별적 봉쇄 조치 '인정'



미주리의 잭슨 카운티에 위치한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 ©Google map

미국 미주리 주의 한 대형 교회가 코로나 봉쇄 조치를 두고 지방 정부와 분쟁 끝에 합의금 15만불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였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8 일 미주리의 잭슨 카운티 의회가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에 14만 6750불을 지불하는 합의안을 투표로 가결했다.

이 교회는 잭슨 카운티의 코로나19 규제가 세속 단체에 비해 예배당을 더 가혹하게 취급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카운티는 교회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향후 세속 단체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댄 타워터 잭슨 카운티 의원은 지역 매체인 'KC스타'에 합의안을 승인한 데 대해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시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는 지난해 5월 미주리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 한 소송에서 "5월 11일 동부 잭슨 카운티에서 발효된 재개방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인원 수 제한 하에 비필수 소매점, 개인 서비스,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술집이 대중에게 재개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세속적인 사업장들은 건물 수용력의 10%에서 25% 내에서 영업 재개가 가능했지만, 교회는 '대규모 모임 및 친목 행사'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교회는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실내 인원이 10명 이하로 제한됐다.

소송은 "피고인들의 명령이 종교적

모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별적이며 상업적인 모임만을 선호한다"며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 "종교 기관이 특별한 부담을 지게끔 지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운티의 제한 조치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연스럽고 불가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한 미주리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잭슨 카운티 및 카운티 보건국을 비롯해 카운티 행정관, 보건국장, 행정국장, 비상관리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소송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예배에 대해 차별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가 시행됐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미 연방 대법원은 예배 모임을 10명에서 25명 이하로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지침은 예배당을 적색 지역과 황색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색은 실내 인원 수용력의 25%와 10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황색은 수용력의 33%와 25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제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미뤄지거나 잊혀질 수 없다"며 "예배 제한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일-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예배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F. (310)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일-토) 오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영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일-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노년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일 4부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청년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2:0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성복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3부 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화-토)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2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평신도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 70% "예수만이 유일한 길 아냐"

#### 다원주의 수용 때문

스스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들 중 약 70%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세계관 정립 사역을 하는 '프로브 미니스트리'(Probe Ministries)는 거듭난 기독교인 717명을 포함해 모든 종교 집단에서 18세에서 55세 사이 미국인들 3,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 개인적인 사원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확인했다. 그들은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믿음도 확인됐다.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무함마드, 부처, 예수가 모두 하나님께 가는 유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들은 특정 종교에 소속돼 있다고 밝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모든 응답자들 중 20%에 불과했다. 한편 응답자의 60%는 적어도 매년 다른 사람을 개종시킬 의도로 신앙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프로브 미니스트리스의 수석 부대표인 스티브 케이블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애를 쓰겠나? 물론 유익한 종교를 선택해야 하는 비종교인과 (신앙을) 공유할 수는 있다"고 했다.



©Pixabay

설문조사 결과,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원주의의 수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들과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한 것이다.

케이블은 "이것은 언뜻 놀라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가 모든 종교 집단의 지배적인 문화에서는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다원적인 이유는 모든 종교집단에 걸쳐 인구의 3분의 2를 끌어모을 정도로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의 흐름에 맞서기 위해 목회자와 교회는 성도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배타성을 더욱 강한 집중력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 “4년 전 보코하람에 납치된 레아 사리부 살아 있다”



보코하람에 납치된 레아 사리부 © 한국 순교자의 소리

## 강제로 이슬람에 개종당하고 대원과 결혼

약 4년 전 나이지리아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감금된 여학생 레아 사리부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목회자가, 최근 피해자가 살아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당시 15살의 중학생이었던 레아 사리부는 오베주의 한 학교에서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보코하람에 납치됐다.

이후 다른 소녀들은 풀려났지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리부는 현재까지 포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녀의 건강에 대해 알려지 바는 없지만,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하고 보코하람 대원과 결혼한 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드온 파라-말람 목사는 오픈도어선교회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살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보원 3곳에게서 아직 레아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가 결국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레아가 납치된 지 거의 4년이 지났다. 이 십대 소녀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그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은, 레아가 언젠가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한다”고 했다.

나이지리아는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하는 박해국가리스트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나이지리아에서 학생들은 계속 납치 위협에 처해 있다. 올해에도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학생들이 약 1천여 명이 강제로 학교를 그만뒀고, 전국 600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파라-말람 목사는 “납치가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다.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강혜진경 기자

## 미얀마 화재 현장에서 사람 구하려던 목회자, 군인 총에 맞아



성경을 읽고 있는 미얀마 기독교인. ©오픈도어

### ‘가스펠 포 아시아’ K. P. 요한 박사, 미얀마 위한 기도 요청

텍사스에 본부를 둔 복음주의 단체 ‘가스펠 포 아시아’(Gospel for Asia)의 K. P. 요한(K.P. Yohannan) 박사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에 ‘미얀마: 기독교인들이여,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자’(Myanmar: Christians, let’s pray for our brothers and sisters)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내용.

오늘날 미얀마 교회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휘말려 있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몸이 있다. 지체의 한 부분이 공격을 받을 때,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특히 미얀마의 친(Chin) 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친족의 90%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교육 받은 리더이자 사업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친족들은 군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9월 18일, 미얀마 군대는 탄틀랑이라 불리는 주요 도시에서 자국민들에게 중포 공격을 가했다. 그들은 친기독교인들의 집을 불태웠다. 한 목회자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려다 길에서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그를 도와려주려고 했던 다른 이들도 쫓기다가 총에 맞았다.

미얀마에서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다. 그들의 미래는 2가지 사이에서 결정된다. 군대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군대와 싸우고 있는 무장세력과 힘을 합치거나.

나는 탄틀랑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현재 탄틀랑 인구의 절반이 총격과 폭탄 테러를 피해 달아났다.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10개 교회 1,000명의 성도들은 산과 국경을 넘어 참혹한 여정에 나서려고 애쓰면서, 현지에 남아 박해를 받거나 정글에서 살다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그 교회에는 6가정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피신했다.

우리 모두 서양에서 국경을 넘는 이들의 참혹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미얀마의 상황은 심각하다. 직장, 집, 학교에서 도망친 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시 천막을 치고 산속을 헤맨다. 강물은 난기류이고, 장마철에 물이 불어난 탓에 건너는 이들은 빠른 물살에 휩쓸리기 일쑤다.

친구와 가족 간 의사소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으로 드러난 남성들의 희생양이 된다. 인신매매범들은 ‘안전한 동행’을 위한 약속을 하고 큰돈을 벌지만, 가족의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팔아 넘긴다.

우리가 전염병 문제에 너무 휘둘러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미얀마 교회를 위해, 목사님과 사제들, 선교사들, 그 가족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자. 만약 당신에게 속한 이들이 공격받거나 흩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다. 문제는 우리의 뺨속까지 불이 붙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테러 사건에서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파악하고 있는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자. 피신한 성도들과 아직도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자로 일어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정치 지도자들의 살해와 박해가 멈추기를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 일어나 그 아름답고 고통받는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자.

강혜진 기자

## 아이티서 납치됐던 미 선교사 석방돼... 몸값 6억 이상 지불



사진 속 인물 중 오른쪽이 장 피에르 페레 미셀(79) 목사다. ©페이스북

지난 10월 3일 아이티 갠단 ‘400명의 마우조’에 납치됐던 미국인 장 피에르 페레 미셀(79) 목사가 55만 달러(약 6억 4,300만 원)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미셀 목사의 석방 소식은 그의 딸이 20일 올린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에 따르면, 아이티리브레통신은 아이티의 텔마스29에 위치한 예수센터(Jesus Center) 설립자인 미셀 목사가 3일 오전 8시경 아이티 경찰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은 무장 괴한들에 의해 교회에서 납치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2명의 교인인 이사벨 데벤데기스와 노먼 와이너도 함께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교인은 곧 석방됐으나, 미셀과 와이너는 몸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19일 “미셀 목사의 친척 2명과 성도 2명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3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아이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데렉스에 따르면 자신의 트위터에 “미셀과 와이너의 석방을 위해 25만 달러가 추가로 지불됐

다”고 밝혔다.

미셀의 가족은 19일 CP의 인터뷰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나, 그의 딸은 선교사 피랍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후 도움을 준 페이스북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셀 목사는 풀려났지만, 17명의 선교사들은 1,7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감금돼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16명과 오하이오에 본부를 둔 크리스천에이드 미니스트리(Christian Aid Ministries)에서 일하는 캐나다 1명을 납치한 사건에 대해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에이드 미니스트리는 이날 CP에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바란다”며 기도와 금식을 위한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외교부는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란다. 수감자, 정부 관계자, 납치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존회원
- 기독교대학(BAL), 목회학부(M.Div.), 상담학부, 신약학부,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부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6280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9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g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석사 및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현역 이종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학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감사의 사람!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년 휴가를 받고 요양하시다가, 몸이 좀 회복되면서 6개월 만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때 설교 본문이 다니엘서 3장 16절-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덕했던 얼굴이 앙상한 가지처럼 말랐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목사님의 모습과 그 진심어린 고백을 들으며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

다. 투병 기간 중, 몇 번을 보았는데,, 그 때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였습니다.

“채장암은 몇 달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시니 감사하지요.”

“안목사, 이 약이 정말 비싼 약이야! 우리 성도님이 이 비싼 약을 돈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드시라고 섬겨주시네, 감사할 뿐이야!”

“교회에서 이렇게 예우를 해주시니, 내가 몸 둘 바를 모르겠네, 감사할 뿐이네”

저 뿐 아니라, 투병중인 목사님을 만난 모든 분들이 한결 같이 목사님의 '감사 고백'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은퇴하고 세코야에 집을 하나 사셔서 그 곳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저는 찾아뵙지 못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찾아가시면, 자신은 먹지도 못하시면서 오신분을 위해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아픈 분 병문안 갔다가 스테이크 얻어먹고 온 적은 처음이다.'고들 하셨습니다.

저에게 형님 같이 목회와 인생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분은 "마지막까지도 감사의 삶"이라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지난 주간,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오며, 평소엔 '형님'처럼 생각하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교회에도 2년 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기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후로 채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2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61세라는 나이, 어릴 적에는 60살, 환갑이 지나신 분이라고 하면, 노인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참으로 젊게만 느껴집니다.

61세라는 나이에서 38년을 한 교회를 섬기셨고, 그 중에 30년을 담임 목사로서 시무하셨으니 이민교회에서는 찾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 주 월요일에 만나 운동도 함께 하고, 식사도 하면서, 목회 뿐 아니라, 인생의 많은 지혜를, 목사님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투병 생활 가운데 몇 번을 보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뵈지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제게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주 전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요양하시던 세코야에 조만간에 한 번 다녀오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얼굴을 한 번 뵈고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남습니다.

채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안식

###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에 다시금 예수그리스도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 다시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을 더욱 유념하라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옵니다.(롬 10:16-18) 들음에서 실패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들은 것이 무엇이나? 너희가 들은 것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히 2:3-4)>라고 말합니다. 너희 들은 것은 <구원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을 들었습니다. 1) 처음에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2)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confirmed)했습니다. 3) 하나님께서 표적, 기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은 그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일 자신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2. 이같은 큰 구원, 구원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입니다. (히 2:3) 특히 <이 같이 큰 구원 so great a salv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구원이 크냐는 것을 설명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1) 앞에 히브리서 1장에 우리가 믿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뛰어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믿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이 같은 큰 구원을 듣고도,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데 (히 2:2-3)>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배에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balla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신앙의 무게 중심인 밸러스트(ballast)를 채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1세기의 히브리서가 "어떤 변함 없는 의미와 도전을 주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다시 재발견해야 할 도전과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 첫 번째 경고입니다. <pay much closer attention to>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e do not drift away from it.>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drift away, 표류한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인 상황, 믿음의 상황, 신앙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면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표류하는 신앙으로 어디론가 흘러가는 세상의 조류와 흐름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세상이 오늘 우리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3가지를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표류하는 신앙, 소홀해진 은혜, 깨져버린 믿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늘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표류하는 신앙

### 이준수 칼럼

## 하나님의 마이크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목회자로서 나는 말씀을 전하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3가지 간절할 바람이 있다.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고정됐으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꼳꼳한 자세가 되었으면, 말을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 말이다.

다른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내용을 신경 쓰고 염려하지만, 나는 설교 자체보다는 '머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말을 너무 더듬으면 안 되는데...' 하는, 내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을 안고 단상에 오른다. 지난 12년의 목회 동안 수많은 곳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해왔지만 늘 이렇게 긴장되면서도 간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간곡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의 등 뒤에 서 너를 항상 붙잡아주고 도와줄 테니 아무 염려 말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채로, 한쪽으로 기울듯한 몸을 갖고, 또 더듬거리고 어눌한 발음으로 성도

들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힘차게 외치고 있다. 비록 몸은 흔들리고 기울었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똑바로고 꼳꼳하리라 다짐하면서...

흔히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내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담임목사님이 "이준수 목사님이 온몸으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시곤 하는데, 그 말이 맞다. 나는 정말 온몸을 다 사용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설교할 때 몸이 흔들려 원고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며칠 동안 외운 전체 설교 문장을 끊임없이 기억해 내야하고, 손으로는 연상 흔들리는 고개를 잡아야 하며, 몸이 너무 기울지 않게 계속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설교하는 30~40분 동안 온 근육과 신경이 잔뜩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 몹시 지치고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끝까지 다 젖어버린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를 2번 해야 할 땐 양복도 두 벌 갖고 가 1부 예배 끝나고 갈아입곤 한다. 나에게 설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온몸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마치 '마

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마이크 말이다. 마이크 자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 소리는 마이크를 갖고 사용하는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가 없으면 주인의 음성을 널리 전할 수 없으니 주인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꼭 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마이크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 나오는 소리가 좀 뒤틀리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원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완전하고 전능하신 한, 그 '둔하고 뻣뻣한' 소리가 성도들의 귀에 정확히 전달되어 커다란 감화감동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 마이크의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어 빨간 불이 켜지면 어디선가 다가오

는 성령의 뜨거운 온기가 마이크를 다시 새롭게 충전시켜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꺼지지 않고 충실하게 말씀을 전달하리라 것도 깊이 확신한다.

비록 마이크는 너무나도 약하고 고장난 데가 많아 내일이라도 당장 고물상에 넘겨야 할 존재지만, 그 마이크를 사용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서서 가장 연약한 그 곳에서 당신의 완전하신 섭리를 나타내리라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 역임장)

# CDTV 미주기독일보

미주기독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 (2)

창세기 21:1-21



(본문)1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중략)...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20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머니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 3. 육적인 후계자의 만행(蠻行)

AD571년에 메카에서 과부의 유복자로 태어난 마호메트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여 추장집에서 여러모양으로 일을 도우며 살아 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그 추장 집에서 추장 부인되는 사람에게 시중듣고 살다가 추장 아내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팔레스타인이나 광야나 시리아까지 행상을 했습니다. 행상을 하다가 26살 때 자기보다 15살 많은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 과부의 이름은 카디아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 죽고 딸 한명만 살았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전도를 받으며 듣게 되었는데 이사람 마음속에는 지금껏 쫓겨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면서부터 들어왔었기에 서자 혈통의 자손으로서 서러움과 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능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거저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예언자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예언을 한다고 이말 저말을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고향 사람들은 그의 나고 자람을 아는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그를 도리어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메카에서 쫓겨나고 메디나라는 작은 도시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짓예언자 노릇을 합니다. 고향 메카에서 쫓겨난 그는 AD622년 메디나로 옮겨서 아내의 도움으로 군대를 조직 했습니다. 이 유급 군대를 가지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적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정없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종족들까지 죽이면서 630년에

큰 군대를 조직해 훈련시켜 자신을 쫓아낸 메카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그 이듬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571년에 태어나 633년 62세에 죽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만든 코란을 사용합니다. 코란은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뜻은 아랍어로 복종과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가르침에 복종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은 거역하면 죽이고 복종하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코란은 아라비아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14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90장은 메카시대에 이 사람이 쓴 것이고 24장은 메디나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코란의 내용은 90장은 메카시대에 받은 계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시가 아니라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알라신의 유일성을 주장했고 사람은 알라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과 단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순례도 해야 한다는 것, 성월이라고 해서 7월15일을 전후로 해서 한 달간 알라신만 경배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나 시대에 기록된 24장은 예배 단식 순례 성월을 지키게 하면서 민법과 형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작두에다가 손목을 잘라 버립니다. 이 율법은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는 6대 신조가 있고 5대 실행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6대 신조는 알라신, 천사, 경정(코란), 예언자, 내세를 믿어라, 천명(자신이 기록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었고, 5대 실행 법은 억지라도 신앙고백은 해야 하고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 단식도 해야 하고 후사하는 것, 성지순례해야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대 신조와 5대 실행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완전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 큼 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경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파가 5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력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분파로는 씨앗파, 순리파, 세만파, 카마트파, 하시스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분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만든 동기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기에 엉터리 종교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속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세상 많은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 4. 자유하는 여인의 후손(後孫)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셔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으로 입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22~31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

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코란에는 죄를 용서받는 대안이 없습니다. 불교나 어떤 종교나 죄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불교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지금 스님으로 예수믿고 신학을 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 모여 예수님을 증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창대케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길들이기 위해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세력을 통하여 교회를 그 손아귀에 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3년 반 동안 불어 진짜와 가짜를 저절로 구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서라고 다니엘서에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간질을 앓다 열병으로 죽은 마호메트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영어로 god, 즉 그냥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이슬람교는 사람이 만든 엉터리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대로 오신 분이요 그분을 통하여 구속하신 백성들을 성령을 받게 하심을 보아 참 구속의 교리이며 구원의 진리임을 알아 목숨을 내 걸고 이 복음을 전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I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I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북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AMI1310	기쁜소리방송
기독교일보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뱅크랍시**  
뱅크랍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서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도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번 한번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 일고 있습니다.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절실함 가진 인생**

# 어려울수록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립시다

인생 변화시키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줄 그어야  
절실함, 실패자들 이야기 아닌 '꿈 이루는' 능력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 절실함 통해 꿈 이뤘다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 관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인생에 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줄에 서기 위해 노력한다. 학연과 지연을 동원해 줄을 선다.

그러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넘지 말아야 할 줄을 긋는 것이다.

얼마 전 성공한 벤처 CEO가 부적절한 영상을 SNS에 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좋은 줄에 서는 것보다 넘지 말아야 할 줄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줄 하나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젊은 사람일수록 절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절실하다'는 표현이 "아주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SNS가 대세인 지금, 없어 보이게 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다. 모두 '쿨하게' 살고 싶어한다.

관점을 달리 하면 '절실함'은 없어 보이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의 저자 장중호는 '절실함'은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꿈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절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 보이는,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절실함'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다. 단지 이를 풀어나가는 생각과 관점이 다를 뿐이다."

저자는 절실함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절실함을 통해 꿈을 이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로마 개방성과 포용력, 절실한 젊은이들 깨워  
칭기즈칸도 추위 탈출이라는 절실함이 만들어  
절실함 잃은 인생과 기업, 추락의

### 길로 가기도

로마는 절실함으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로마인의 유전자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족보다 못하며,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진다."

애매한 유전자를 가진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절실함'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개방성과 포용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 절실함을 가진 젊은이들이 전쟁에 뛰어 들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없던 '애매한' 유전자의 로마인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열린 생각으로 정복 전쟁을 비즈니스화하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성공하겠다는 절실함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는 포용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결과 로마제국은 수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도 절실함이 만들었다.

최초의 몽골은 변방의 조그마한 부족국가였다. 몽골족이 살던 땅은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게다가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가 몰려오는 곳이었다.

그 결과 동족끼리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칭기즈칸은 동족을 죽이는 일을 절실하게 멈추고 싶었다. 그는 동족들에게 외쳤다.

"서로를 베던 피의 에너지를 끌고 몽골고원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자!"

동족 간에 겨누던 칼을 세계 정복의 에너지로 바꿔서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이루었다.

절실함은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절실함은 잃은 인생은 추락하는 삶이 되기도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는 휴대폰의 노키아 제국, 인터넷의 야후 제국, 전자업계의 소니 제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러나 절실함을 잃어버린 기업은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평범한 기업이 되었다.

저자는 절실함은 긍정과 용기를 먹고 자란다고 말한다. "절실함은 엄청난 긍정의 힘을 필요로 한다.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실하지 않다. '절실함'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다."

'배달의 민족' 사무실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80%는 실패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고난을 겪는다.

절실함은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만든다.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절실함에서 온다.

온라인 영어교육 사이트 '야나두'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벤처 경영인의 별명은 '프로 실패꾼'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광팬이었다. 그래서 야구를 즐기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러다가 약 10년 전 '갈매기 타임즈'라는 롯데 자이언츠 관련 무가지 신문을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무가지 사업은 이미 트렌드가 지났고, 신문을 받아든 사람들은 읽기는 커녕 깔고 앉거나 찢어서 응원 도구로 활용했다.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말았다. 그러나 곧 새로운 사업에 재도전했다.

그는 EBS의 강의 콘텐츠를 수

강생들에게 무료로 듣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수강생이 만약 1년 동안 강의 콘텐츠를 끝까지 성실하게 수강했다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획기적인 마케팅 방식이었다. 이 서비스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회원수를 모집했고 큰 돈을 벌었다.

그는 이 성공으로 자기만의 사업에 도전했다. 지금의 '야나두'를 창업하고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수강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 획기적인 서비스로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교육 분야에서 1등을 달성했다.

이제 관점 바꿀 때... 절실함, 차별화 이끌어  
고난의 유익, 우리를 절실하게 만든다는 것

이제 관점을 바꿀 때다. 절실함은 없어 보이는 단어가 아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도 아니다. 절실함은 차별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길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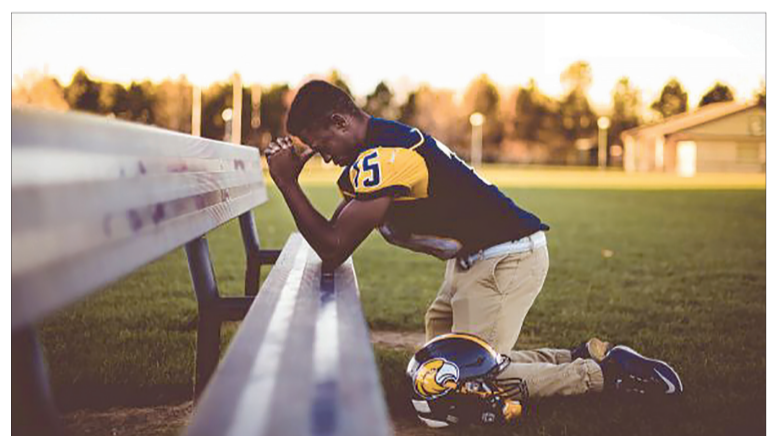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실함에 하나님은 반응하셨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절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실함이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긍정의 용기가 필요하다.

어려울수록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려야 한다. 절실함을 가진 인생은 어떤 위기도 포기하지 않는다.

절실함을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Ben White ©Unsplash

## 지진과 폭력으로 어려운 아이티 투찌에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이티 투찌에 마을 소망학교 어린이들에게 학교 가방을 선물합니다. 지진과 폭력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가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등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아이티 재해 복구를 후원해 주세요!!”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 CHRISTIAN BUSINESS

##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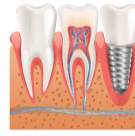


##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정확한 수술을 위해, 충분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임플란트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동희 원장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규황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종자추출물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을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상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0%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해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인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뇨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할리우드 영화 <둔> (中)**

# 영상 예술의 탈을 쓴 종교다원주의 영화, <둔>

대중문화 통한 종교다원주의 전파 '침범' 감성적·직관적 측면 중시한 수피즘 영향 주인공, 세레 요한과 무함마드 섞은 인물 예수, 인간이자 실패한 종교 지도자 묘사

◆<둔>과 수피파 이슬람: 사막 종교문화에 대한 예찬

영화 <둔>(Dune)은 광신적 종교 집단 베니 제서릿을 서사의 중심에 두고 있다.

원작 소설 <둔>에서 이 종교 집단은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폭력 혁명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지 가톨릭 성경이라는 것을 경전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등 지구의 문명으로부터 유래된 각종 종교사상을 통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종교 설정에는 소설 <둔>의 작가 프랭크 허버트(Frank Herbert)의 종교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일단 <둔>이라는 소설은 그 제목의 의미(dune, 사막의 모래언덕)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막 지형을 주된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는 허버트가 기자로 활동하던 당시 미국 오리건 주 사막 생태에 대해 연구하고 취재한 경험이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막이라는 자연환경과 종교 문화의 연합을 구상하던 허버트가 주목한 것은 사막과 건조기후 스텝 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종교, 이슬람이었다.

여기에 더해 허버트는 원래 가톨릭 신자였지만, 1950-1960년대 당시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일본 선불교에 매료되어 불교로 개종한 상태였다.

이에 허버트는 <둔>에 선불교적 요소와 이슬람 요소를 주로 반영해서, 베니 제서릿이라는 소설 속 종교집단을 창안해 냈다.

기독교,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내부에도 여러 교파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니파, 시아파가 있고, 그 외 이런저런 소수 교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수피파가 있다.

수피파는 9세기 경부터 온전한 분파를 이루었고,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카, 메디나,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지역보다는 주변부인 소아시아,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지역 투르크인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수피파의 교의는 수니, 시아파의 교의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신비주의적이었다. 그들은 신앙의 지적 측면보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을 중시했다.

신은 인간의 교리나 경전 안에만 담아둘 수 없고, 각종 종교적 체험과 자연 만물의 신비한 조화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종교성에 대한 강조는 사막과 초원에서 거친 자연환경을 몸으로 겪으며 살아가던 투르크 유목민족과 용병들에게 커다란 설득력을 지녔다.

이로 인해 수피파는 초기 오스만 투르크, 사파비 왕조, 그리고 무굴 제국 수비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화약제국(Gunpowder Empires)이라 불리는 근대 중동, 남아시아 대제국들이 모두 수피파를 기반삼아 탄생한 국가였던 셈이다.

물론 이 제국들은 훗날 내부의 체제가 안정되고 영토가 거대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제도화도 잘 되어 있는 수니파 혹은 시아파 이슬람으로 전향한다.

허버트가 선불교의 관점으로 이슬람 교파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것은, 당연히 하계도 수피파 이슬람이었다.

신 혹은 무한자를 지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인격으로 여기기보다는, 신비하고 불가해하면서도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으로 믿었던 수피파의 사상은 공허를 직시하며 인간의 무지와 자기비움을 강조하던 선불교의 성향에 잘 들어맞는 것이었다.

◆<둔>과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신앙의 약화

원작소설 <둔>의 저자 허버트는 사막이라는 기후환경에 맞춰 문화적, 생태적 개연성이 있는 SF 종교서사를 쓰려고 했다.

이런 그의 의도에 따라 수피파 이슬람과 선불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수피파 이슬람이 베니 제서릿이라는 종교, 그리고 프레멘이라는 사막 종족의 행태



<둔>에 등장하는 사막민족 프레멘. 수피파 이슬람을 추종하던 투르크 유목민족이 모티프가 되었다.

와 문화를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다.

작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선택받은 자, 폴 아트레이드(티모시 샬라메 분)는 전 우주에 널리 퍼진 종교인 베니 제서릿으로부터는 '퀴사츠 헤더락(Kwisatz Haderach)'으로, 대단히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사막민족 프레멘에게는 '리산알-가이브(Lisan al-Gaib)'로 불린다.

전자는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 카발라에서 빌려온 히브리어 용어로서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이고, 후자는 아랍어로서 '다른 세계에서 온 목소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쉽게 말해 폴 아트레이드는 유대교-기독교의 세레 요한과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섞어놓은 인물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더해 훗날 우주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만 계략에 의해 시력을 잃고 권좌에서도 물러나며, 결국 사막에 홀로 버려져 방랑하게 되는 폴 아트레이드의 비참한 운명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 왕의 서사를 빌려온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결과적으로 <둔>은 모든 종교가 하나의 초월자에 대한 신앙의 다양한 배리에이션이며, 그 초월자의 정체는 자연 만물을 감싸는 무와 공허의 신비라는 선불교 사상을 적극 반영하는 작품이다.

이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막과 우주라는 무대, 그리고 수피파 이슬람 사상을 끌어온 것이 <둔>의 종교서사이다. 그리고 이를 서구적인 감성으로 포장하기 위해 기독교, 특히 가톨릭 신앙

요소를 여럿 차용했다.

이로써 <둔>은 포스트구조주의 종교관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히피 문화운동으로 대중화에 성공한 종교다원주의를 대중문화 콘텐츠에 적극 반영했고, 그 결과 커다란 상업적 성공, 문화적 반향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둔>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파운데이션>(1942)의 우주 대서사시를 빌려와 종교서사로 변용하는 데 성공했고, 훗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타 워즈>를 제작할 때 상당한 모티프를 제공했다.

영화로서는 <스타 워즈>(1977)가 먼저 제작됐지만, 원작 소설로서는 <둔>(1965)이 약 10년 정도 먼저 나와서 <스타 워즈>의 배경 설정과 서사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타 워즈>의 감독이자 제작자였던 조지 루카스 역시 히피 운동의 영향을 깊게 받은 선불교 개종자였다는 점이다.

<둔>은 오늘날 대중문화계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최초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고도로 발전된 기계문명에 의해 인간성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담은 동시에, 그 반작용으로 나온 광신적 종교사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억압하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폭로한다.

결국 <둔>의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배타적 진리 주장을 펼치는 신앙의 약화를 풍자한다.

<둔>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대중문화 속 종교 이해를 결정짓는 작품이 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 종교관은 학문적으로 나

름의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반면 과거 1960-1970년대 히피 문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대중문화라는 경로를 통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일반에 널리 전파하는 침범 역할을 했다.

영상 예술의 탈을 쓴 종교다원주의는 직관적이고 매혹적이어서 대중이 손쉽게 수용할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어떤 종교에서든 '실질한' 신앙을 갖는 것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 현대적인 감성에 맞지 않고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준다.

<둔>의 서사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 일반에 대한 이러한 폄하의 정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제국의 정치를 막후에서 조종하는 광신적이고 폐쇄적이며 종교집단 베니 제서릿에 대한 묘사는 명백히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실패한 메시아로서 폴 아트레이드의 일대기는 기독교인들이 고수하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이 상향으로 만드는 데 실패한 종교 지도자로서 궁극적으로 단지 한 명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폴 아트레이드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맞춤형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www.openstewardship.com](http://www.openstewardship.com)

우리 함께 -

# 손 잡아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1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http://www.openstewardship.com)


##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요강

접수기간

2021년 10월 15일 - 2021년 11월 24일

수혜단체 발표

2022년 2월 24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